

한전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2010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3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력기자재 제조업체, 전기공사시공분야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한전 자재처(처장 박정근)가 주관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후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전기조합, 한전 등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 한국전력공사, 10년 중소기업설명회 개최



한전은 2011년부터 국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라 유형 자산의 공정 가치를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재평가대상 유형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11조 3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평가대상 유형 자산별 평가차액은 ▲토지 4조 2천억원 ▲건물 998억원 ▲건축물 3조 6천억원 ▲ 기계장치 3조 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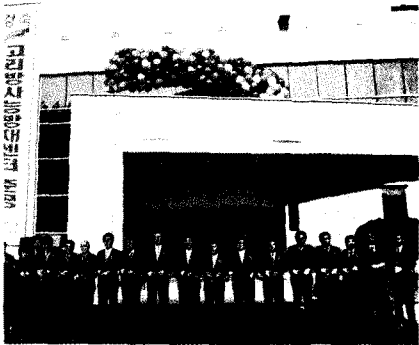
- KEPCO, 6개 발전사, KPS 전력그룹 재평가차액 : 22조 3천억원
- 평가기간 : 2009년 8월 ~ 2010년 2월
- 재평가 기준일 : 2010년 1월 1일
- 재평가 결과 : 2011년 재무제표(K-IFRS)에 반영

### 한국전력공사, 자산재평가 실시

방사능재난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리 방사능방재센터' 및 '비상대책본부' 준공식이 2월 5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군 현지에서 열렸다.

센터는 방사선 방호·방재장비 및 제염장비는 물론 국가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AtomCARE)과 연계한 원전 운전상황 정보수집 설비, 원격화상회의 설비, 비상통신 설비, 정보화 설비 등 첨단화된 비상대응 설비를 갖추고 있다.

### 한수원, 고리 방사능방재센터 준공



이번 '고리 방사능방재센터'의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월성, 영광, 울진, 대전에 이어 5번째의 방사능방재센터를 갖게 되었으며, 국내 주요 원자력시설 주변에 현장 방사능방재센터를 모두 갖추어서 현장 중심의 국가 방사능 방재체제를 완벽하게 되었다.

평상시에는 방사능재난 대응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점검·훈련·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시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고리원전의 방사선비상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수원, 신울진 원전 1,2호기 입찰공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월 16일 신울진 원전 1,2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한 제한경쟁입찰로 시행되는 이번 공사는 ▲발전소 단위호기 100MW 이상 준공 실적 ▲전기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점유 ▲KEPIC - MN, EN, SN 인증 보유를 모두 충족하는 3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원전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 1곳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입찰은 3월 2일 PQ를 거쳐 10일 마감한다.

한수원은 이번 입찰에서 대표사의 지분율을 기존의 5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낮춰 대표업체에 수주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았다.

또, 대표사 제한규정을 신설, 원전사업에 수주한 경우 다음 국내 원전사업에는 대표사로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UAE 원전 시공업체인 현대건설과 삼성건설 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성 심사기준도 변경했다. 지금까지 공정별로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심사대상 공종수의 20% 이상인 경우 '유찰'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이 조항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예정가격 아래 입찰자 중 부적정 공종수가 적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했다.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는 한수원이 지난해 4월부터 3차례 공고를 내고 수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들이 가격 적정성 심사기준에 미달하면서 매번 유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김종신 사장)은 지난 2월 25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 원전본부에서 '세계 최고 명품 원전건설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짐대회'를 열고 시공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제로화' 등을 통해 적기 명품 원전건설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 등 원전 시공업체 대표, 한전원전연료 한전KPS 삼창기업 등 관계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UAE 원전 수주를 통해 입증된 세계 최고 명품인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신기술 개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으며, 참여 업체간 동반자적 관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형 원전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모델인 신고리 3,4호기(APR1400)에 원전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SC 구조 모듈화 공법'을 시범 적용키로 했다. 또 같은 모델인 신고리 5,6호기부터는 SC 구조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Open Top(수직반입) 공법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전 기술인력 양성사업에도 주력, 올해는 양성규모를 대폭 늘려 원전 건설인력은 600여명, 운영분야 인력은 400여명 등 총 1,000여명의 원전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한수원은 특히 국내 처음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리 3,4호기 현장에 안전벨트 체험교육장과 안전모 충격 체험시설 등 총 23개의 체험시설을 갖춘 안전 체험장을 건립했다. 가로 40m, 세로 18m, 높이 15m 크기로 건립된 안전 체험장은 한수원과 협력회사 직원을 상대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외부인에게도 문호를 개방, 안전사고 제로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 한수원, '세계 최고 명품 원전 건설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짐대회' 열어



## 한국중부발전, 남인석 사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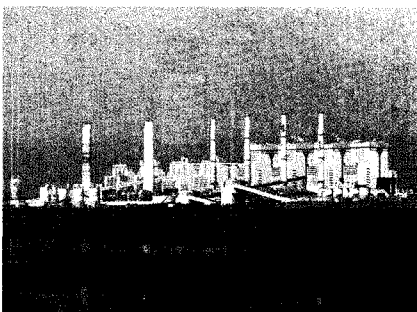
남인석(54) 전 기술표준원장이 한국중부발전 제5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남 신임 사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지난 1977년 기술고시(13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심사2국장, 옛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기술표준원장으로 재직해왔다.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남 사장은 “2010년부터 중부발전 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가답게 행동함으로써 회사와 직원 모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3P-2010 운동’을 펼쳐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력사업 선진화와 경영효율 극대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기업환경 구축 ▲발전설비의 경제성 제고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과 선진 노사 문화 정착 등 네 가지를 경영방침으로 내세웠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7호기 15,000시간 무고장 운전



태안화력발전소 7호기가 지난달 28일부터 1만5000시간 장기무고장운전에 성공했다.

한국서부발전(사장 손동희)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7호기는 2008년 2월 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701일간 계획예방정비기간을 제외한 625일(1만5000시간) 동안 고장 한번 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 7호기는 국내 최초로 회처리장이 없는 친환경,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소로서 선행호기 운영을 통해 쌓은 기술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50만kW급 한국표준형 석탄화력발전소론 처음으로 55만kW 신뢰도 운전 시험을 완료한 바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민영 발전사(IPP)인 바크리파워와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서발전은 이번 각서에 따라 2013년까지 인도네시아 동 칼리만탄의 탄광 지대인 상가타 지역에 100MW급 석탄 발전소 2기를 건설해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4억5000만 달러로 동서발전이 35%, 바크리파워가 60%, 현지 에너지 회사 DEP가 5%의 지분을 갖는다.

한편 동서발전은 자사의 지분에 따라 매년 39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국동서발전, 인도네시아서 석탄발전소 2기 건설



LS산전이 1690억원 규모의 경전철사업을 수주했다. 녹색교통의 한 축인 경전철사업에 진출하면서 LS산전은 그린비즈니스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구자균 LS산전 부회장과 최재신 고려개발 대표는 25일 경기도 안양 소재 LS타워에서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계약체결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고려개발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광명경전철사업 중 차량을 포함해 SE(System Engineering), 전기, 신호, 통신, 기계, 검수 등 전기·기계 분야인 E&M(Electric&Machinery) 시스템 전체를 공급하고 설치·시운전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건축·토목부문은 제외됐다.

차량은 일본 미쓰비시가 하도급 방식으로 18량 규모의 고무차륜 경전철 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 LS산전, 광명 경전철사업 수주

###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 LOI조인식



## 현대중공업, 파키스탄 풍력시장 진출

현대중공업은 25일 삼성동 한국남부발전(주)에서 파키스탄 YB(YUNUS BROTHERS)사와 5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파키스탄 남서부 신드(Sindh) 지역에 건설되는 파키스탄 최대 풍력단지에 군산 풍력공장에서 생산되는 1.65MW 풍력발전기 30기를 올해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파키스탄 YUNUS측이 51%의 지분을 투자했고 현대중공업 35%를 포함하여 남부발전,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종합상사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49% 지분을 투자한다.

현대중공업은 이 프로젝트에 핵심설비인 발전기를 판매하고 풍력단지 완공 후에는 투자비율에 따라 전력판매 수익을 거두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최대인 600MW 규모의 군산풍력발전 공장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가동을 앞둔 9월 미국 웨이브 윈드(Wave Wind)사로부터 1.65MW 발전기 6기를 수주하며 미국 풍력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태백에서 6기의 풍력 발전기를 수주했고, 이달 11일에는 전북도청과 200MW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풍력발전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현대건설, 건설업계 최초 매출 9조 돌파

현대건설이 지난 2009년 건설업계로는 처음으로 매출 9조원대를 돌파했다.

현대건설(사장 김중겸)은 2일 지난해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은 2008년 대비 27.6% 증가한 9조2,786억원을 달성했으며, 순이익도 전년대비 22% 증가한 4,558억원을 달성해 각각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이익은 4,189억원과 5,865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5조 6,996억원의 신규수주 달성, 2009년 12월말 현재 47조 5,703억원의 수주잔고를 기록함으로써 5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 사상 최대치의 누적 수주잔고를 달성했다.

매출은 중동지역 플랜트 공사 확대 등 해외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 토목, SOC 부문에서도 증가하여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영업이익은 일부 진행현장의 예상손실 반영에 따른 원가율 조정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다소 하락한 4,189억원을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회사채 신용등급이 종전 'A+'(안정적)에서 'AA-'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A2+'에서 'A1'으로 각각 상향되어 업계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 ● 4월부터 조선업체에 제품 공급

오는 4월 본격적인 후판 생산을 앞두고 있는 현대제철이 현대중공업의 기술협력으로 조선용 후판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부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 한진중공업 등 국내 5대 조선업체에 대한 테스트용 조선용 후판 공급에 나섰다.

최근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세계 10대 선급업체의 평가원들이 진행하는 선급 인증(조선용 후판 품질 인증)도 진행됐다. 테스트를 무리 없이 통과하면 서류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인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정했던 대로 4월부터 본 제품을 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현대제철을 고무시키는 것은 현대중공업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제철의 조선용 후판 개발 과정에서 직접 기술진을 파견해 관련 기술을 전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제품 개발에 큰 힘이 됐기 때문이다.

조선용 후판은 자동차용 강판과 함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으로, 생산

## 현대제철 - 현대중 손잡고 후판 생산

과정에서 수요처인 조선업체의 자문은 질 좋은 후판 생산에 큰 도움이 된다.

현대중공업의 제품 개발 지원으로 조선용 후판 공급처 확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현대제철은 당진 일관제철소를 통해 100만 t 이상의 후판을 생산할 계획이다.

## LS전선, 필리핀 전철시스템 사업 수주

LS전선이 필리핀 전철 요금 통합시스템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기존 전선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LS전선은 필리핀 교통통신부 전철 요금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BOT(Build, Operating, Transfer) 방식으로 수주했다.

BOT란 통합 솔루션을 구축한 공급사가 운영까지 담당하여 이익을 확보한 후 해당 솔루션을 기부 채납하는 사업 형태이다. 이번 사업은 최초 연도 250억원, 향후 14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프로젝트이다.

마닐라에는 현재 3개의 전철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노선별로 각각 다른 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청돼왔다.

또 LS전선은 현재 4~10분 정도 걸리는 매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한편 LS전선은 이번 사업 수주를 계기로 향후 필리핀의 버스, 택시, 철도, 여객선 등 모든 교통수단의 소매결제시장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KEA